

#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박재연  
(성균관대학교)

Park, Jae yon. (2005). On the correlation of epistemic modality and interrogative. *Language Research* 41(1), 101-118.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epistemic modality and interrogative, and to describe some linguistic phenomena in Korean. I recognize that the semantic domain of epistemic modality and that of interrogative have an overlapping part. The meaning of 'Interrogative' can be characterized as 'to demand an information from hearer' in communicative respect, and can also be characterized as 'to express speaker's ignorance' in modal respect. In Korean, it is observed that epistemic forms like '-ne, -guna, -gun, -damyeonseo(sentence final endings)' sometimes invoke a pseudo-interrogative effect. That's because the epistemic expressions used in the declarative sentences make the sentences to be less informative. I also observe that the meanings of interrogative endings like '-eunga, -eulgga' are apt to be interpreted as epistemic judgement. I think that these are endings of soliloquy, so they are not so much expressing speaker's demand for an information from hearer as expressing the state of speaker's knowledge.

**Key words:** epistemic modality, interrogative, pseudo-interrogative, speaker, hearer, information

## 1. 서론

이 글은 양태(modality)의 하위 부류인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문장 유형(sentence type)<sup>1)</sup>의 하위 부문인 의문문(interrogative)이 맺고 있는 의미론적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어의 문법 현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술과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논문의 초고는 2003년 7월 2일 제3회 국어연구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조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심사의견서의 지적은 이 논문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의견들을 이 논문에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미처 보완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1) 본고에서 '문장 유형'이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논의에서 문체법이나 의향법 혹은 서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양태와 문장 유형 범주는 서법(mood) 개념을 사이에 두고 개념 정립에 있어서 혼선을 빚어 왔으나,<sup>2)</sup> 서로 구별되는 범주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본적으로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인 반면, 문장 유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거나,<sup>4)</sup> 의문형 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표현하는 듯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양태와 문장 유형의 범주적 연관성이 주목된다.

다음은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이 질문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예이다.

(1) 가.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네? (연세대편 1998)<sup>5)</sup>

나. 두호야, 너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구나? (연세대편 1998)

다. 현대 너 어머니가 보구 싶겠군? (연세대편 1998)

라. 그 집 요즘 형편이 꽤 좋다면서? (국립국어연구원편 1999)

(1가~라)는 차례로 종결어미 ‘-네, -구나, -군, -다면서’가 사용된 예이다. ‘-네, -구나, -군, -다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술되어 왔다(장경희, 1985; 이효상, 1991; 손현선, 1998; 박재연, 1999; 2004 등 참조). 그런데 (1가~라)에서 제시된 의문 부호를 동반한 예들은 이와 관련한 논의와 사전류에서 의문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문장이 갖는 의문문과 같은 성격은 이들 어미가 갖는 양태적 의미와 연관지어 설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sup>7)</sup> 이러한 문장이 진정한 의문문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서법은 양태의 의미 영역을 구현하는 문법 범주인 것으로 간주되는가 하면(고영근, 1986), 문장 유형이 서법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장경희, 1985, p. 13; 임종빈·장소원, 1995, p. 352). 또한 양태와 문장 유형의 영역을 모두 서법에 포함시켜 논의한 연구도 있다(서정수, 1996, 6장).

3) 박진호·박병선(1999, p. 3, 각주 2)에서는 양태(이 논의에서는 ‘서법’)는 청자와의 관계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태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만을 문제삼는 데 반해 문장 유형은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화의 기능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문제삼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의문문’이란 ‘문장 유형’이라는 문법 범주의 한 종류이고, ‘질문’은 발화수반력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층위를 달리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문문’은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개념적 기반으로 성립하는 문법 범주이다. 본고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을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다.

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1998년에 펴낸 “연세한국어사전”을 연세대편(1998)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리고 사전류의 기술을 인용할 때는 면수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6) 연세대편(1998)은 이러한 용법의 ‘-네, -구나, -군, -다면서’의 예를 모두 의문문으로 기술하였다. 반면 국립국어연구원편(1999)에서는 ‘-네, -구나, -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법을 기술하지 않고, ‘-다면서’가 사용된 예만을 의문문으로 기술하였다.

7) 고영근(2004, pp. 227-234)에서는 ‘-네, -구나’의 경우를 본래 문장 유형(이 논의의 용어로는 ‘문체법’)을 나타내는 요소가 양태성을 드러내는 우발적인 예로 다루었다.

한편 한국어에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도 존재한다. 다음 예를 보자.

(2) 가. A: 지금 밖에는 비가 오나?

B: 그런가 봐.

나. A: 간밤에 눈이 왔을까?

B: 글썸.

(2가, 나)의 예에서 각각의 화자 A의 발화는 의문형 종결어미 ‘-은가(-나)와8) ‘-을까’가 통합된 의문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의심’이나 ‘추측’과 관련한 인식 양태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김하수, 1976, p. 64; 한길, 1991, p. 143; 박재연, 1998, pp. 110~113).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의문문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화자가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의문문에서 화자의 판단이 표현된다는 기술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은가’와 ‘-을까’의 어떠한 특성이 이러한 인식 양태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고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법 현상을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 영역을 이들이 갖는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해당 문장으로 하여금 의문문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1)과 같은 현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4장에서는 의문형 어미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 보이는 (2)와 같은 문법 현상을 살펴본다. 5장은 결론으로서 논의의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2.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9)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는 인식론적 가능성(possibility)이나 필연성(necessity)

8) ‘-나’는 ‘-은가’에 ‘-는(-느)’가 통합된 ‘-는가(-는가)’가 융합된 형식이다(이현희, 1982나, p. 157). 현대 한국어 구어체에서는 ‘-는가’보다는 ‘-나’가 더 빈번히 사용되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가 통합된 예도 ‘-은가’의 예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은가’는 청자대우법상 하계체 어미의 기능과 반말체 어미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데 양자 사이에는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계체로 사용되는 경우 ‘-은가’는 ‘-나’나 ‘-습니까’ 등과 같은 무표적인 의문형 어미이다(자세한 논의는 박재연, 1998, p. 72 참조). 본고에서 관심 가지는 ‘-은가’는 흔히 ‘의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반말체 어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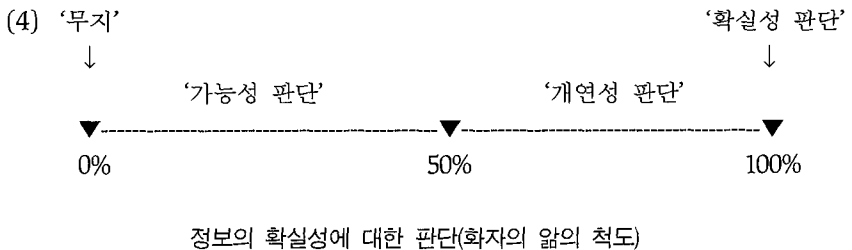
9) 본고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관심 가지지만, 양태 혹은 문장 유형 범주의 의미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Bybee (1985), Chung & Timberlake (1985), Sadock & Zwicky (1985), Palmer (1986), Bybee *et al.* (199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등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박재연(1999, pp. 202~203; 2004, 3장)에서는 인식 양태를 보다 넓게 이해하여,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 바 있다.

- (3) 가.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나.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 추론, 전언(hearsay)  
 다.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라.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既知假定), 미지가정(未知假定)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루어진 것은 (3가)의 의미 영역이다. (3가)는 화자 혹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가리킨다. (3나)는 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3다)는 해당 정보가 화·청자의 지식 체계에 얼마나 동화(assimilation)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즉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화·청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정보와 새로 알게 되어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다. (3라)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3가)의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이 의미 영역은 명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화자가 그 진실성(truth)을 얼마만큼 보장하는가를 가리킨다. 즉 이 영역은 화자의 앎의 척도(scale)이다. 수치를 이용하여 그 세부를 구별한다면, ‘확실성 판단’은 화자가 사태의 진실성에 대하여 100%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개연성 판단’은 화자가 100%는 안 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은 가진다는 의미이다. ‘가능성 판단’은 화자가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50%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기로 하자.



10) 이는 인식 양태의 개념적 체계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Slobin & Aksu (1982), Delancey (1986), Palmer (1986), Chafe & Nichols eds. (1986), Bybee et al. (1994) 등의 유형론적 논의에 등장하는 인식 양태와 유관한 의미 영역을 간추려 본 것이기도 하다. 이중 (3가, 나, 다)의 의미 영역은 한국어 를 다룬 이효상(1991)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박재연(1999, 2004) 참조.



성격을 떨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양태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그러한 문장은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에게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sup>14)</sup>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과 같이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양태 요소의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보의 획득 방법’이나 ‘정보의 내면화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요소가 사용된 평서문도, 의문문과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 중 ‘새로 읽’은 해당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정보는 언제든지 새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수정될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화자는 기본적으로는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평서문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이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확인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의문문적 의도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의문형 어미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자의 무지의 표출이라는 의문문의 양태적 측면이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 영역은 겹치는(overlapping)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관관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론적 상관관계와 관련한 이론적 사실을 논의하였다. 인식 양태와 의문문은 서로 구별되는 범주이지만 그 의미 영역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주목된다는 것, 따라서 일부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된 문장은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의문문에 가까운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도 화자의 판단과 관련한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되어야 할 몇 가지 한국어의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Lyons (1977, p. 595)에는 “It may be raining.”과 같은 추측 표현이 비제보적(non-informative)인 속성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다.

14)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이러한 현상이 화용론적으로 Grice (1975)의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연관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협조적인 청자라면 화자의 무지함을 표현하는 문장을 들었을 때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문장은 당연히 의문문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인식 양태 어미와 유사의문문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구나, -군, -다면서’ 등의 종결어미는 질문의 성격을 띠는 문장에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네’의 예를 보기로 하자.

- (5) A: 영화는 내년에 미국에 간대.
- B: 그럼 철수 혼자 남게 되네?
- A: 아니, 철수도 같이 간다던데.

(6) 그럼 철수는 혼자 남게 되네.(↘)

(5)에서 화자 B의 발화는 종결어미 ‘-네’가 사용된 문장인데,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장은 기존의 사전류에서 의문문으로 기술되었다. 실제로 (5)의 대화에서 화자 B의 발화와 화자 A의 두 번째 발화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때 화자 B의 발화는 상향 억양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는 하향 억양을 가지면서 화자의 단정을 표현하는 (6)과 분명히 구별된다.

‘-네’가 사용된 (5)의 화자 B의 발화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연세대편(1998)에서는 “명제 내용에 대한 말하는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듣는 이에게 반말로 동의의를 구하는 물어 보는 뜻을 나타냄(강조 필자).”이라고 기술하였다. 손현선(1998, pp. 281~282)에서도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민(2000, p. 113)에서는 이러한 문장은 화자가 명제 내용을 완전히 지각하고 있어 부족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네’의 이러한 용법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15)</sup> 다음을 보자.

- (7) 가. \*철수는 언제 가네?
- 나. \*철수는 가네, 안 가네?

(7가, 나)는 상향 억양을 가지고 의문문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네’의 용법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본고는 이것을 매우

15)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을 말한다. 선정의문문은 판정의문문의 특수한 경우로서, 여러 선언지(選言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달라는 ‘개별선정의문문’과 선언지에 정반대인 내용을 또 하나의 선언지로 하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달라는 ‘가부선정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이현희 1982가, p. 6).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부선정의문문의 예만을 다루기로 한다.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다. 설명의문문의 의문사는 명제 내에서 채워져 있지 않은 미지항을 가리킨다. 즉 사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중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되며, 따라서 설명의문문에서는 화자의 무지가 표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네’가 설명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네’가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용법의 선정의문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장경희(1982, p. 9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평서문이나 명령문은 긍정문과 부정문이 연쇄된 형식으로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영이가 왔다, 안 왔다.”, “\*영이야, 가거라, 가지 마라.”), 의문문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연쇄로 이루어진 선정의문문의 형식이 가능하다. 의문문에서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순 없이 연결되어 선정의문문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선정의문문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이끄는 문장이 화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자의 ‘모름’이 아닌 ‘앎’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상의 사실을 검토해 볼 때, (5)의 화자 B의 발화는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형 종결어미에 의한 전형적인 의문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이 가지는 질문의 효과는 화용론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이러한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영역이 간접적으로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본 바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네’가 ‘새로 앎’의 특성, 즉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손현선, 1998, pp. 282-283; 박재연, 1999, p. 213).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네’도 화자의 불완전한 앎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지식 체계의 표면에 머물러 있는 정보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 즉각적으로 수정될 여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에게 이를 확인 받거나 수정 받고자 하는 목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앎을 표현하는 평서문일 뿐 진정한 의문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장을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e)’이라고 불러, 이들이 문법적으로 의문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네’와 같은 요소가 자신이 통합된 평서문으로 하여금 유사의문문이 되게 하는 화용론적 효과를 ‘유사의문문 효과’라고 부르기로 한다.

인식 양태의 ‘정보의 확실성 정도’의 의미 영역 중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겠’이 ‘네’와 함께 사용된 문장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더욱 자연스럽다.



- (8) A: 이제 같이 놀기도 어렵겠네?  
 B: 아마 그럴 거야.

(8)의 화자 A의 발화에는 ‘-겠네’가 사용되었다. ‘-겠-’은 ‘추측, 즉 박재연(1999; 2004)의 용어로 말하면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겠-’이 표현하는 ‘개연성 판단’의 의미 영역과 의문문이 갖는 ‘무지’의 의미 영역이 화자의 앎의 척도라는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겠-’이 사용된 평서문은, ‘-겠-’이 통합하지 않은 평서문에 비하여 의문문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의 화자 A의 발화에는 ‘-겠-’뿐 아니라 ‘-네’가 함께 통합되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정보임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경우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정보 전달력은 매우 미약해지고 청자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강조되어 질문의 화용론적 효과를 유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구나’나 ‘-군’이 사용된 다음과 같은 발화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문이라 할 수 없으며, 대화에서 발휘하는 질문의 효과는 화용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 (9) A: 벌써 청소를 다 해 냈구나?  
 B: 아니, 좀더 해야 돼.

(10) 또 싸웠군?(연세대편 1998)

(9)의 화자 A의 발화는 종결어미 ‘-구나’가 사용된 문장이다. 대화에서 화자 A의 발화는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며, 화자 B의 발화는 그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수행한다. (10)에서 ‘-군’이 사용된 예도 의문 부호를 동반하고 있으며 연세대편(1998)에서 의문문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 문장이다.

그러나 ‘-구나’와 ‘-군’의 이러한 용법은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11) 가. \*청소를 언제 다 해 냈구나?  
 나. \*청소를 다 해 냈구나, 안 해 냈구나?

- (12) 가. \*또 왜 싸웠겠군?  
 나. \*또 싸웠겠군, 안 싸웠겠군?

16) 연세대편(1998)에 실린 ‘-네’의 의문문적 용법 중 대다수가 ‘-겠네’가 통합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11가, 나), (12가, 나)는 각각 ‘-구나’와 ‘-군’의 의문문과 같은 용법이 각각 설명 의문문과 선정의문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구나’나 ‘-군’이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설명의문문과 선정의문문에서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구나’나 ‘-군’이 사용된 앞의 (9)의 화자 A의 발화와 (10) 역시,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진정한 의문문이 아니라 유사의문문 효과를 가지는 문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구나’와 ‘-군’이 유사의문문 효과를 갖는 이유 역시 그 양태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구나’와 ‘-군’은 흔히 감탄형 어미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경희(1985, pp. 89-101)에서 ‘감탄’이 ‘-구나’의 핵심 의미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구나’의 양태 의미로 ‘처음 읽’의 의미를 제안한 바 있다. 이효상(1991)에서는 ‘-군’이 “내면화되지 않은 형식(unassimilated forms)”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구나’ 혹은 ‘-군’ 역시 ‘네’와 마찬가지로, ‘새로 읽’의 속성, 즉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자리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나’와 ‘-군’의 경우에도 ‘-겠-’과 통합할 때 유사의문문 효과가 강조된다.

- (13) A: 너는 이제 미국에 가게 되겠구나?  
B: 응. 올 봄에 갈 것 같아.

- (14) 가. 그럼 철호는 네 형쯤 되겠구나? (연세대편 1998)  
나. 헌데 넌 어머니가 보구 싶겠군? (연세대편 1998)

(13)의 화자 A의 발화와 (14가, 나)는 ‘-겠-’이 ‘-구나’ 혹은 ‘-군’에 통합되어 사용된 예이다. 이 경우에도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요소와 ‘새로 읽’을 표현하는 요소가 함께 사용되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정보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에서는 ‘-구나’ 혹은 ‘-군’만이 통합된 문장에 비해 유사의문문적 성격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논의에서 의문문으로 파악하였던 종결어미 ‘-다면서’의 예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진정한 의문문이라고 할 수 없다.

- (15) A: 너 어제 학교 안 갔다면서?  
B: 아냐. 나 갔어.

- (16) A: 영희는 곧 결혼한다면서?  
B: 응, 나도 어제 들었어.

노용균(1984, pp. 71 ~ 73), 김홍범(1987, p. 80), 박재연(1998, p. 107)에서는 ‘다면서’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세대편(1998), 국립국어연구원편(1999)에서도 ‘다면서’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15), (16)의 각각의 화자 A는 청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앞에서 본 ‘했-’이나 ‘네, -구나’ 등이 사용된 유사의문문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면서’가 사용된 문장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의 용법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7) 가. \*너 언제 학교 갔다면서?

나. \*영희는 곧 결혼한다면서, 안 한다면서?

(17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면서’는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면서’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앎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면서’가 유사의문문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어미가 ‘정보의 획득 방법’의 영역 중 ‘전언’의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의 영역 중 ‘기지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사실(박재연 2000가, p. 187, 각주 19)로써 설명될 수 있다. ‘전언’에 의한 정보는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청자가 그 정보에 대해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경우 화자의 정보 전달력은 더욱 미약해지고 청자의 확인을 구하는 의문문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다면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앎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면서’가 이끄는 문장들도 역시 유사의문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평서문에 ‘네’, ‘-구나’, ‘다면서’ 등의 인식 양태 요소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4장에서는 반대로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4. 의문형 어미와 인식 양태적 판단

이 장에서는 의문형 어미 ‘-은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이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과 연관되는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은가’와 관련하여서는 ‘의혹(성기철, 1970=1975, p. 177; 한길, 1991, p. 82),’ ‘자문(서정목, 1987, p. 54),’ ‘의심-의문(임홍빈, 1988=1998),’ ‘개연성 판단(박재연, 1998, p. 110)’ 등의 의미 기능이 지적되어 왔으며,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을까’에 대해서는 ‘말할이의 추정(김하수, 1979),’ ‘화자의 추측 판단(이성구, 1983, p. 71),’ ‘가능성 판단(박재연, 1998, p. 111)’ 등의 의미 기능이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 이때 ‘-은가’나 ‘-을까’가 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 의미 파악인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18) 가. 영화가 오늘 학교에 오나?  
나. 영화가 오늘 학교에 올까?

(19) 가. 영화가 오늘 언제 학교에 오나?  
나. 영화가 오늘 언제 학교에 올까?

(18가, 나)는 ‘-은가’와 ‘-을까’가 판정의문문에 사용된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은가’나 ‘-을까’는 언뜻 ‘영화가 오늘 학교에 온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19가, 나)와 같이 이 어미들이 설명의문문에 사용된 예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다. (19가, 나)의 화자는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에 대하여 추측하는가? 의심이나 추측은 그 대상이 되는 명제가 내용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설명의문문의 명제는 의문사로 표현되는 미지향을 갖기 때문에 의심이나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은가’는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고, ‘-을까’는 ‘가능성 판단’을 나타낸다는 기술은 더 많은 문제를 갖는다. 다음을 보자.

(20) 가. 신부가 예쁘겠다.  
나. 신부가 예쁠 수도 있다.

(21) 가. 신부가 예쁜가?  
나. 신부가 예쁠까?  
다. 신부가 예쁘니?

(20가)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는 ‘-겠.’이 통합된 문장이며, (20나)는 ‘가능성 판단’을 나타내는 ‘-을 수도 있.’이 사용된 문장이다. (20가)의 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표현하고 있으며, (20나)의 화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확실성이 50%도 안 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은가’ 및 ‘-을까’ 의문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 만약 ‘-은가’나 ‘-을까’가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표현한다면, (21가, 나)에서의 화자의 판단은 ‘-겠.’이나 ‘-을 수도 있.’이 사용된 (20가, 나)에서의 화자의 판단과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가, 나)에서, 화자는 ‘신부는 예쁘다’라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단 1%도 책임지지 않는다.<sup>17)</sup> 설명 담화 상황에

서 ‘신부가 예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21가, 나)의 화자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21다)에서 제시한 의문형 어미 ‘-니’에 의한 일반적인 의문문의 경우 그러한 것과 동일하다. 즉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 역시 ‘-은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은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은 어떻게 성격 지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서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은가’와 ‘-을까’는 어디까지나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의문형 어미라는 사실이다. 위의 예문 (20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은가’와 ‘-을까’는 설명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정의문문에도 사용될 수 있다.

- (22) 가. 영희는 지금 학교에 갔나, 안 갔나?  
나. 영희는 지금 학교에 갔을까, 안 갔을까?

(22가, 나)는 ‘-은가’와 ‘-을까’가 선정의문문에 사용된 것을 보인 것이다. ‘-은가’와 ‘-을까’가 설명의문문과 선정의문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미들이 화자의 무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3장 논의 참조). 즉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무지를 표현한다는 것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가’와 ‘-을까’가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 ‘-니’ 등과는 달리 화자의 양태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은가가 이끄는 의문문과, 인식 양태 용법으로 사용된 ‘-을까’가 이끄는 의문문이 기본적으로 독백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과 연관된다(서정목, 1987, p. 54; 박재연, 2000나, pp. 40 ~ 42; 이유기, 2002, p. 204). 다음을 보자.

- (23) A(선배): 그러니까 네 주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B(후배): 그런가? 그럼 이제 어찌죠?  
B(후배): #18)그래? 그럼 이제 어찌죠?

(23)의 대화에서 화자 B의 “그런가?”라는 대답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청자 대우 격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같은 반말체 등급이지만, 화자 B'의 대답인 “그래?”가 부적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재연(2000나, pp. 40 ~ 42)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여 청

17) 실제로는 화자가 해당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의문문의 화자는, 자신의 실제 지식 상태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각주 12) 참조.

18) ‘#’은 대화상에서 부적절한 발화임을 뜻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자 대우 격률의 합법적 위반이 가능한 ‘감탄, 자문(自問), 결심, 후회, 기원(祈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어미들을 ‘독백문 종결어미’라 부른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은가’나 ‘-을까’에 의한 의문문은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자문이기 때문에 독백의 성격을 가진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화자는 청자가 해당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은가’와 ‘-을까’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독백의 성격을 가져서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의 기본적인 가정을 갖지 않는다.<sup>19)</sup> 앞의 (21다)의 “신부가 예쁘니?”를 (21가, 나)의 “신부가 예쁜가?”와 “신부가 예쁠까?”와 비교해 보자. (21다)의 화자가 청자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청자의 앎을 가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21가, 나)의 화자는 청자의 앎을 가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자의 존재조차도 강하게 의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2장에서 의문문의 성격이 통보적 측면과 양태적 측면의 두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은가’와 ‘-을까’에 의한 독백의 의문문은 그 통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은가’나 ‘-을까’의 의미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것은 통보적 성격이 미약함으로 인해 반대로 의문문의 양태적 측면, 즉 ‘확실성의 결여(임흥빈, 1988=1998, p. 142)’라는 화자의 지식 상태가 부각되었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이 장에서는 ‘-은가’와 ‘-을까’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은가’와 ‘-을까’는 화자의 인식 양태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의문형 어미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이 ‘의심’이나 ‘추측’과 같은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이유는 이들이 이끄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독백의 성격을 가져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측면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sup>21)</sup>

19) 윤석민(2000, p. 157)에서도 ‘-을까’에 의한 의문문이 자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장에서는 청자로부터의 정보 충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요구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였다.

20) 박진호·박병선(1999, p. 3)에서도 ‘-을까’와 같은 자문의 경우 화해적 기능은 약해지고 양태적 기능(이 논의의 용어로는 ‘서법적 기능’)이 부각된다고 하였다.

21)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이들 형식이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이들 형식이 ‘의심’과 관련된 양태 의미를 갖는 형식에서 문법화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은가’의 축약 형식으로 이해한 ‘-나가’(1장의 각주 8 참조),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이나’와 통시적으로 연관된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필자의 능력이나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단, 본고에서는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을 표현하는 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양태 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한

## 5. 결 론

본고는 이제까지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론적 성격을 두 범주가 갖는 개념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과, 일부 의문형 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문문이 화자의 무지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문문의 의미 영역은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과 통한다. 또한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도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쳐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 ② 기존의 논의에서는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네, -구나, -군, -다면서’가 상향억양을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갖는 문장에 사용될 때 이를 의문문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문장에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되면, 그 문장이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전달이라는 평서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자에게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질문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갖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한국어에는 의문형 어미인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은가’와 ‘-을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형 어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이며 화자의 어떠한 판단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은가’와 ‘-을까’가 다른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의심’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독백문 종결어미라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들 어미는 다른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미약하기 때문에 화자의 지식 상태와 관련한 양태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이다.

---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을까’는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는’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이에 대한 논의는 박재연, 2004 참조).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은가’와 ‘-을까’가 마치 ‘-겠.’이나 ‘-을 것 같.’처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 관계. 국어학 신연구. 서울: 탑출판사[고영근 (1995)에 실림, 247-263].
- 고영근. (1995). 단어·문장·텍스트. 서울: 한국문화사.
- 고영근. (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하수. (1978).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 4, 55-77.
- 김홍범. (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말 12, 71-91.
- 남기심·고영근·이익섭 편. (1975). 현대국어문법. 대구: 계명대 출판부.
- 노용균. (1984). 국어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 (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국어연구회.
- 박재연. (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225.
- 박재연. (2000가).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24, 171-194.
- 박재연. (2000나). 독백과 독백문 종결어미에 대하여. 국어학논집(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 25-48.
- 박재연. (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박병선. (1999). 서법의 정의 및 한국어 서법 범주의 체계화. 제1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 서정목. (1987). 국어 의문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6). 수정중보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 출판원.
- 성기철. (1980). 국어 대우법 연구. 충북대학논문집 4.[남기심·고영근·이익섭 편 (1975)에 실림, 164-189.]
- 손현선. (1998). 이른바 반말 종결형태의 양태적 의미 연구: ‘-어, -지, -군, -네, -는가, -나’를 중심으로. 남기심 편(1998). 국어 문법의 연구 IV: 되짚어본 국어 문법의 문제들. 서울: 태학사, 251-301.
- 엄정호. (1995). 인식 양태 부사의 의미. 기곡 강신항박사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서울: 태학사, 299-31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윤석민. (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서울: 집문당.
- 이성구. (1983). 국어 의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기. (2002). 『-가』계 의문 종결 형식의 구조. 국어국문학 131, 191-215.
- 이효상. (1991). Tense, Aspect,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CLA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 (1982가).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국어연구회.
- 이현희. (1982나). 국어 종결어미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143-163.
- 임흥빈. (1988). '무슨'과 '어떤' 의문에 대하여: 의문의 통사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말 13. [임흥빈(1998)에 실림, 131-234.]
- 임흥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II: 어휘범주의 통사와 의미. 서울: 태학사.
- 임흥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장경희. (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89-115.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서울: 탐출판사.
- 한 길. (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 Bybee, J. (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fe, W. & J. Nichols. eds. (198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Chung, S. & A. Timberlake. (1985). Tense, aspect, and mood. In Shopen ed. (1985b), 202-258.
- Cole, P. & J. L. Morgan. eds. (1975).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 Academic Press.
- Delancey, S. (1986). Evidentiality and Volitionality in Tibetan, In Chafe & Nichols. ed. (1986), 203-213.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 Morgan. eds. (1975), 41-58.
- Halliday, M. A. K. (1985/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Hopper, P. J. ed. (1982).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Allen and Unwin LTD.[이환목·이석무 역(1987). 문법 철학. 한신문화사.]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yts, J. (2001). *Epistemic Modality, Language, and Conceptualiz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dock, J. M. & A. M. Zwicky. (1985). Speech Act Distinction in Syntax. In Shopen. ed. (1985a), 155-196.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open, T. ed. (1985a).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open, T. ed. (1985b).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lobin, D. I. & A. A. Aksu. (1982).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Use of Turkish Evidential. In Hopper. ed. (1982), 185-200.

박재연

440-7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전자우편 : sortie73@hanmail.net

접수일자 : 2004. 12. 1

수정본 접수 : 2005. 2. 21

게재결정 : 2005. 2. 23